

- ▶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예수의 ‘행복선언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▶ 예수가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‘복되다’고 말하고 그들이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고 말할 때, 이는 곧 도래해야만 하는 올바른 삶의 관계의 정립에 대한 거짓된 위로가 아니다.
- ▶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 일상의 삶이 표현된다. 즉, 예수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이들, 평판이 나쁘며 소외된 이들에 속한다.